

2017. 01.
Vol.33

청소년 차별 실태 연구 ¹⁾

최정원 부연구위원 doccjw@nypi.re.kr

개요

- 조사목적** ▶ 청소년 차별 문제의 전반적인 실태 파악 및 개선책 모색을 위해 차별에 대한 청소년의 문제의식과 태도, 차별 가해·피해·목격 경험, 개선 방안 문항으로 구성된 「청소년 차별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음.
- 조사대상** ▶ 전국의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 실시
- ▶ 남학생 5,438명(52.0%), 여학생 5,012명(48.0%), 초등학생 2,975명(28.5%), 중학생 3,512명(33.6%), 고등학생 3,962명(37.9%), 대도시 4,309명(41.2%), 중소도시 4,481명(42.9%), 읍·면 지역 1,660명(15.9%)
- 조사방법** ▶ 조사원에 의한 학급단위 자기기입식 조사
- 조사기간** ▶ 2016년 5월 말~7월 말

1) 본 블루노트 통계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6년도 연구과제인 '청소년 차별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의 일부내용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최종 보고서를 참조하기 바람.

1 차별에 대한 청소년의 문제의식과 태도

■ 청소년들은 우리 사회에서 학업성적, 외모, 장애, 학력/학벌에 따른 차별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함.

- 우리 사회에 만연한 학력지상주의, 외모지상주의의 심각성을 청소년들도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줌.
-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차별의 심각성에 대한 응답자들의 문제의식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는데 특히 학력/학벌, 학업성적에 따른 차별의 심각성이 큰 폭으로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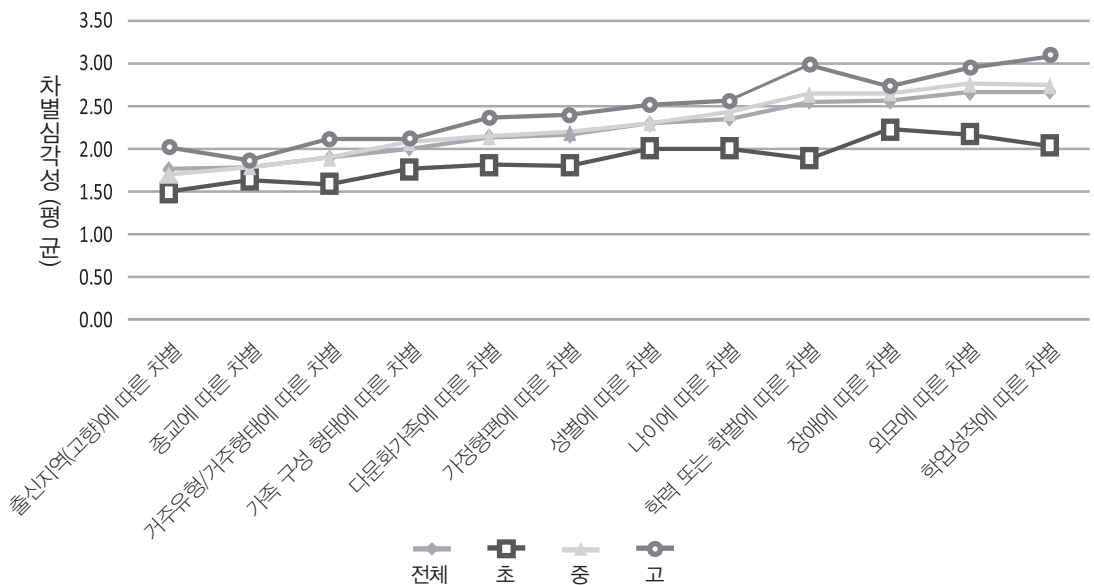


그림 1 청소년들이 인지하는 우리 사회 차별 문제의 심각성(차별 유형별 평균점수)

주: 본 설문문항은 4점 척도(1=전혀 심각하지 않음, 4=매우 심각함)를 이용해 평가하였음.

■ 청소년들은 일반적으로 차별의 당위성을 부정하고 차별의 피해자에 대해서도 높은 감수성을 보여줌.

- 청소년들은 어떤 이유로든 누군가를 차별하거나 반대로 누군가에 의해 차별 당하는 것이 정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함.
- 초등학생의 경우 중·고등학생에 비해 차별 받는 친구를 도와주거나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를 위해 단체 활동에 참여하겠다는 의지가 상대적으로 강함. 차별의 비윤리성에 대한 문제의식은 학교급별로 차이가 없지만 이를 행동으로 실천하려는 적극성은 저학년의 청소년일수록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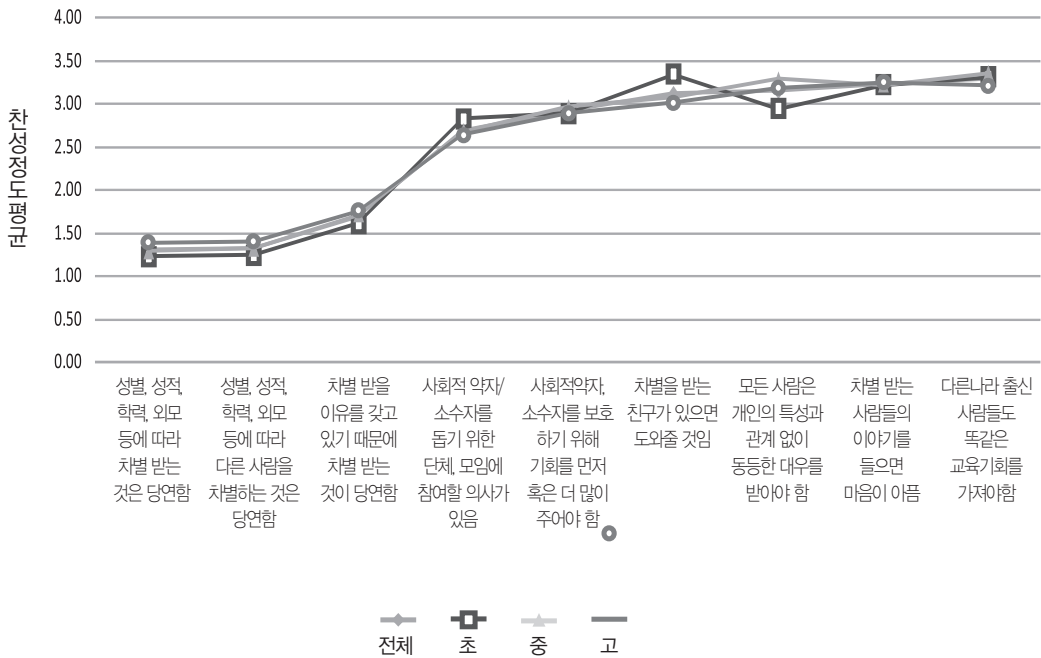


그림 2 차별에 대한 청소년들의 윤리적 태도와 감수성(문항별 평균점수)

주: 본 설문문항은 4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4=매우 그렇다)를 이용해 평가하였음.

2 청소년들의 차별 가해 실태

■ 응답 청소년 중 대다수는 누군가를 차별해 본 경험이 없음.

- 외모를 제외한 다른 이유로 누군가를 차별해 본 응답자의 비율은 7% 미만임. 특히 출신지(고향), 거주유형, 가족구성, 가정형편, 다문화 등을 이유로 누군가를 차별해 본 응답자의 비율은 1%에도 채 못 미쳐 청소년들의 차별 가해 실태가 우려할만한 수준이 아님을 보여줌.
- 차별의 당위성을 부정하고 차별 피해자에 대해 높은 감수성을 보여주었던 청소년들의 성향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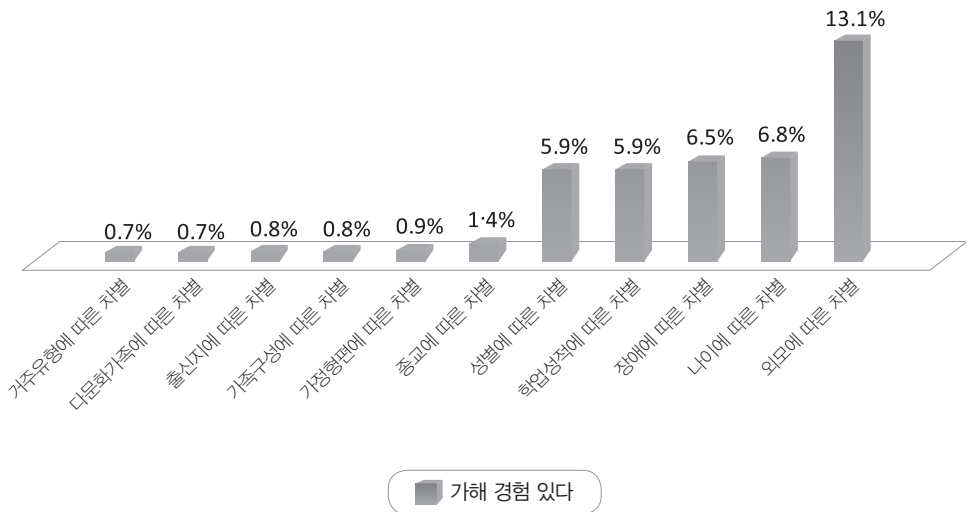


그림 3 청소년들의 차별 가해 경험(차별 유형별, %)

■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가해 경험자의 비율도 증가함.

- 청소년들의 전반적인 차별 가해 실태는 우려할 수준이 아니나 일부 차별 유형에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가해 경험자의 비율도 증가하는 경향이 발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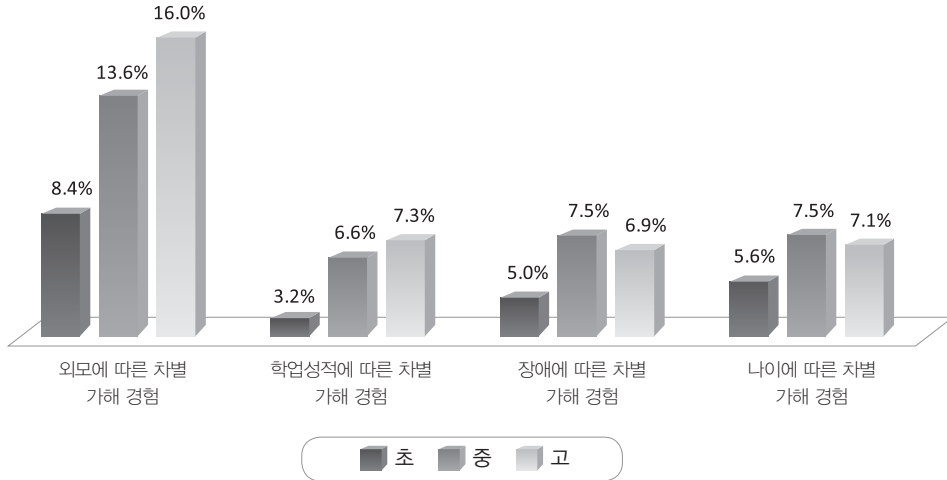


그림 4 외모, 학업성적, 장애, 나이에 따른 차별 가해 경험(학교급별, %)

주: 4가지 차별 유형 모두에서 학교급과 가해 경험 사이에 유의미한 카이제곱 검정 결과 도출.

■ 가해 청소년의 과반수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문제의식과 죄책감을 느낌.

- 자신의 가해 행위를 부당하고 불합리하게 평가하는 가해 청소년의 비율은 69.2%로 가해자 10명 중 적어도 6명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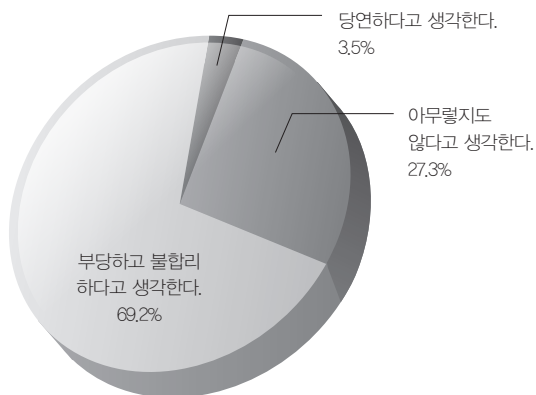


그림 5 자신의 차별 행동에 대한 가해자의 생각(가해 경험자 기준, %)

- 가해 당시에도 자괴감, 자신에 대한 분노,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 등 죄책감을 느낀 가해자의 비율은 72.9%에 달함. 가해자 10명 중 적어도 7명은 가해 당시 자신의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인지하고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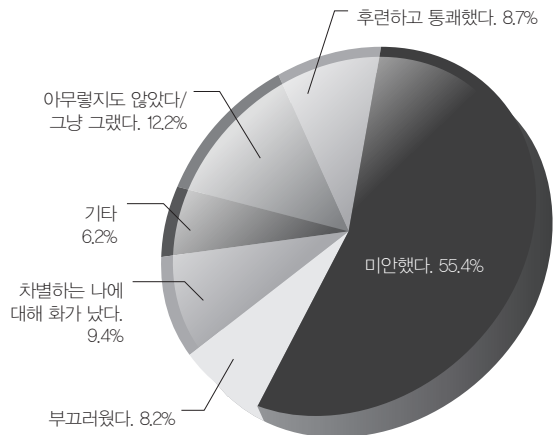


그림 6 차별 당시 가해자가 느낀 감정(가해 경험자 기준, %)

3 청소년들의 차별 피해 실태

- 청소년들이 차별을 당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학업성적, 나이, 성별, 외모 순임.

- 학업성적을 이유로 차별을 당해본 청소년의 비율은 17.9%로 다른 차별 유형보다 상대적으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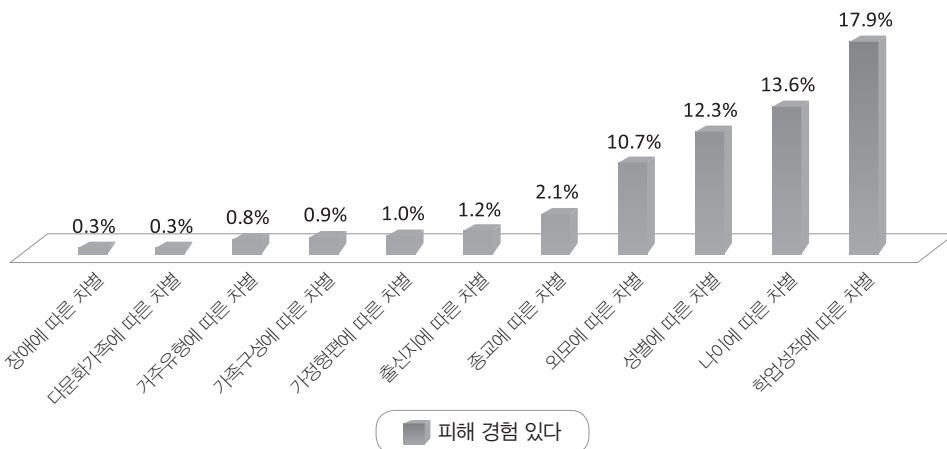


그림 7 청소년들의 차별 피해 실태(전체 응답자 기준, %)

– 특히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학업성적을 이유로 차별을 경험한 청소년의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함. 초등학교의 경우 피해 경험자의 비율은 4.7%에 불과하나, 중·고등학교의 경우 해당 비율이 각각 18.3%, 27.5%로 증가함. 고등학교 4명 중 적어도 1명은 학업성적을 이유로 차별을 당해 보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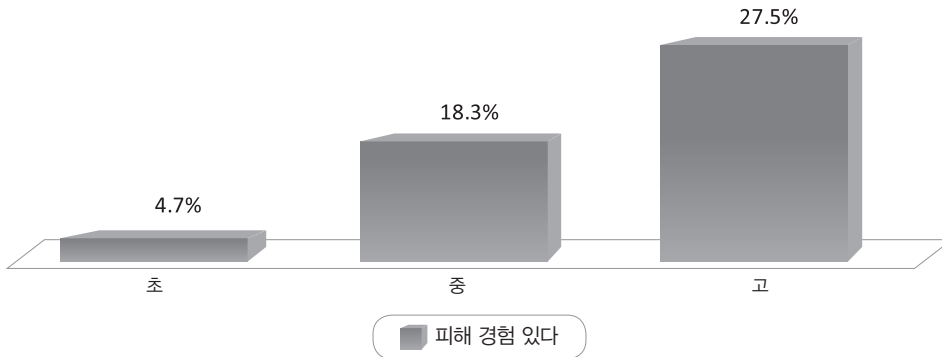


그림 8 학업성적에 따른 차별 피해 경험 비율(학교급별, %)

■ 피해 청소년의 대다수는 자신의 피해 사실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나 피해 당시 또는 후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는 않음.

– 피해 청소년의 85.4%는 자신의 경험을 부당하고 불합리하게 생각함. 피해자의 절대 다수가 자신이 당한 차별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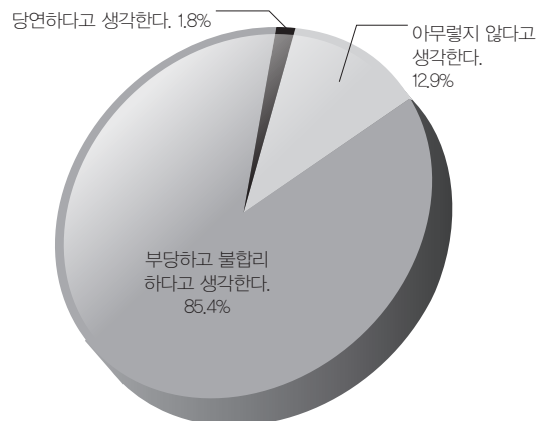


그림 9 차별 피해에 대한 피해자들의 생각(피해 경험자 중, %)

– 그러나 정작 자신의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려 도움을 청한 경우는 32.3%에 불과함. 나머지 67.7%는 자신의 피해 사실을 감추고 문제 해결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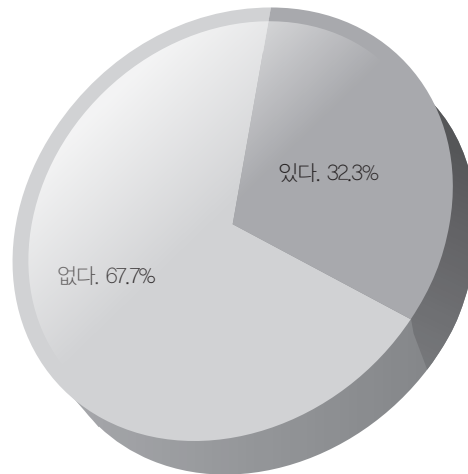


그림 10 차별을 경험한 후 이 문제로 주변과 의논하거나 도움을 요청한 경험(피해 경험자 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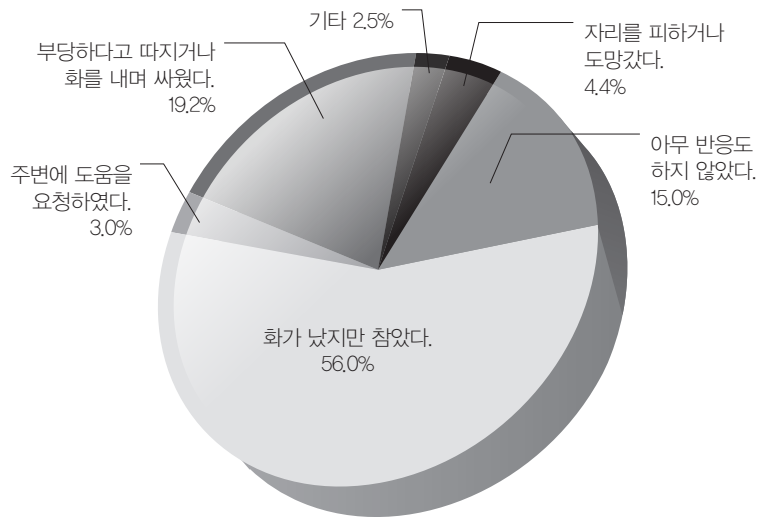


그림 11 차별 경험 당시 피해자들의 반응(피해 경험자 중, %)

– 차별을 경험할 당시에도 이에 적극적으로 대항한 피해 청소년의 비율은 22.2%에 불과함. 인내, 무반응, 도피 등과 같은 소극적 방식으로 피해 상황을 묵인한 경우는 75.4%에 달함. 피해 청소년 10명 중 적어도 7명은 부당하게 차별받으면서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셈.

■ 차별 피해 후 주변에 도움을 청해 본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찾은 상담 집단은 가족/친척, 친구/선후배, 학교 관계자 순임.

– 가족/친척, 친구/선후배에 대한 의존 경향이 학교 관계자(학교 선생님, 학교 사회복지사, 상담 선생님)에 대한 의존 경향보다 3배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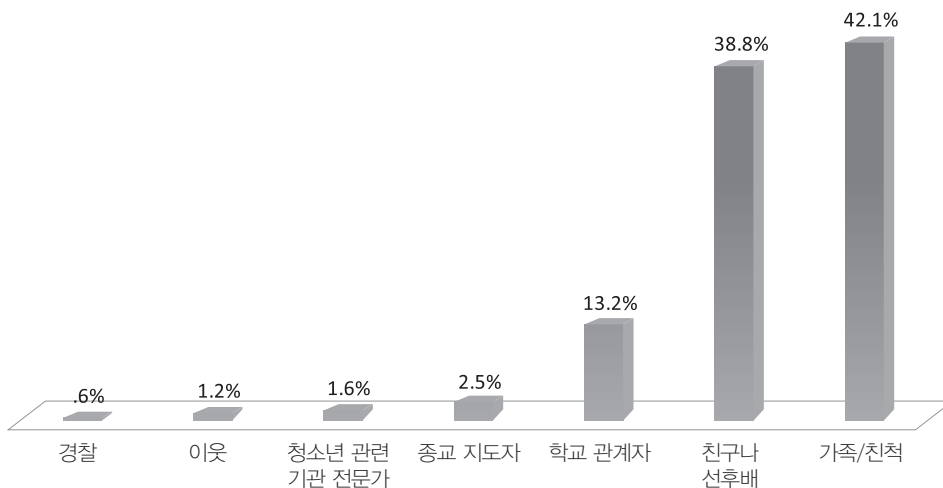


그림 12 피해 사실을 의논하거나 도움을 요청한 대상(중복선택 허용, %)

– 그러나 정작 피해 상담 후 문제 해결에 가장 도움이 된 상담 집단은 학교 관계자임. 학교 관계자 중 피해 학생에게 구체적인 대처 방법을 알려주거나 가해자에게 직접적인 조치를 취해 준 경우는 64.7%로 가족/친척의 53.7%, 친구/선후배의 42.2%에 비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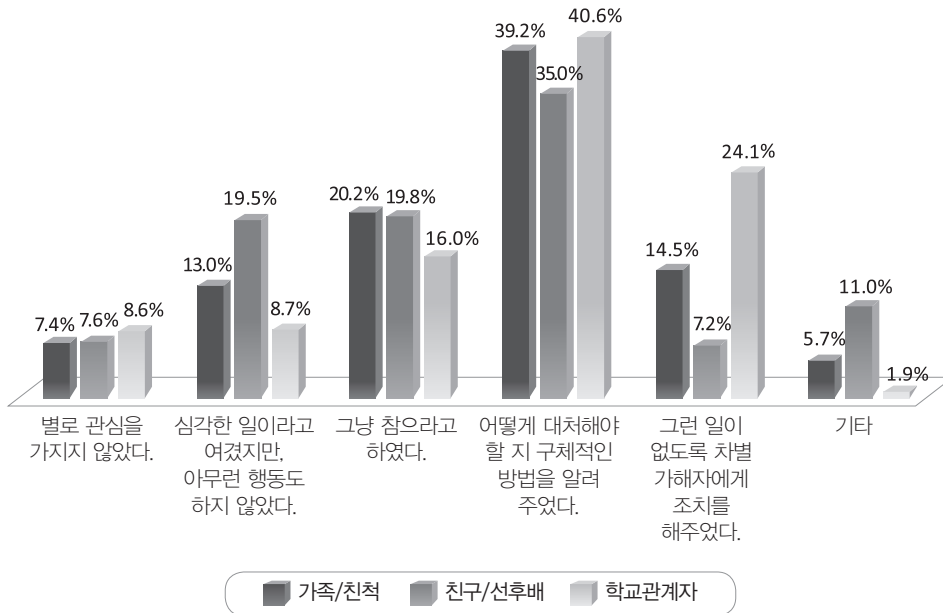


그림 13 도움을 요청받은 상담 집단들이 보여준 반응(%)

- 차별을 당한 청소년이라면 무엇보다 주변에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려 상담 및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학교 관계자처럼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지식과 역량을 갖춘 준(俊)/전문가 집단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함.
- 그러나 상담 및 도움 요청을 받은 학교 관계자 중 33.3%가 무관심, 무대응, 인내 종용 등의 방식으로 피해 사실을 외면한 것은 문제가 큼.
- 청소년들의 차별 피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학교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가족/친척 및 청소년 모두가 차별 문제에 대해 문제의식을 키우고 문제 발생 시 적극적으로 행동하려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음.

4 차별 개선 방안에 대한 청소년들의 생각

■ 응답자의 과반수는 우리 사회의 차별 개선을 위해 사회적 인식 변화와 차별 관련 법령 개정이 가장 필요하다고 지적함.

– 대중매체와 교육을 통한 사람들의 인식 변화 그리고 차별 관련 법령 개정으로 우리 사회의 차별 문제가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은 전체 응답자의 64.4%를 차지함.

– 사회적, 제도적 개선책 외에도 차별 피해자들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답한 청소년은 14.2%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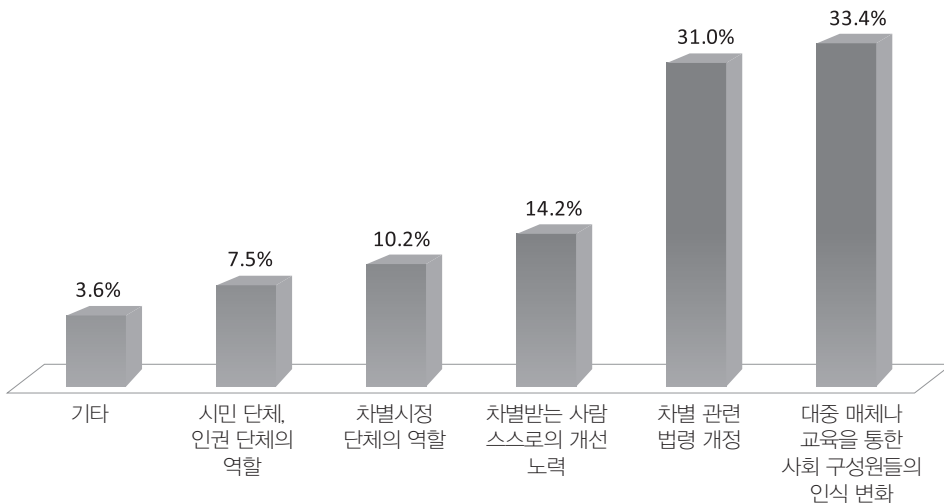


그림 14 우리 사회의 차별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전체 응답자 기준, %)

– 우리 사회의 차별 해소 주체로 정부, 언론 및 교육 기관, 차별 피해자의 역할이 강조된 것도 위의 결과와 다르지 않음.

– 특히 차별 가해자보다 피해자의 노력이 차별 해소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많음. 차별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차별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낸다면 차별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민감성은 개선될 여지가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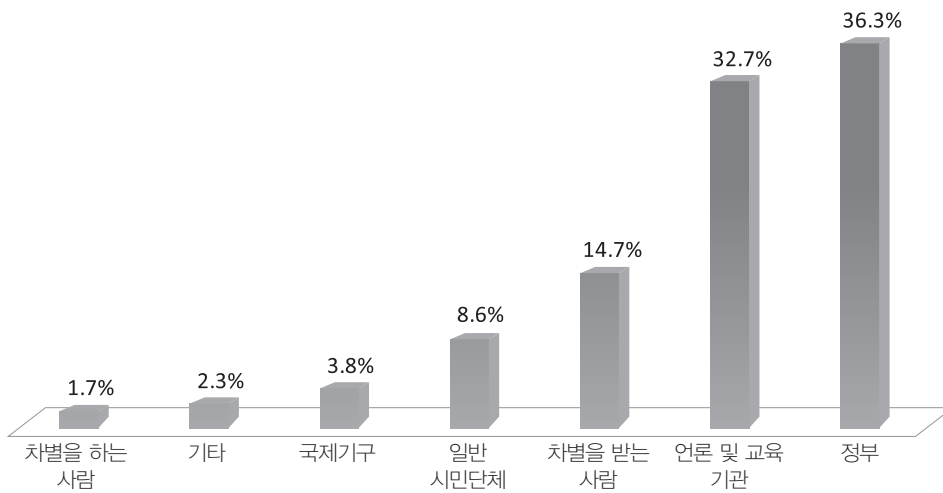


그림 15 우리 사회의 차별 해소를 위해 가장 주도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주체(전체 응답자 기준, %)